

朴 운명 걸린 일주일…특검·헌재에 쏠린 국민의 눈



휴일 반납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가 5일 오전 서울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박영수 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지난 3개월간 이어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여기에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공범으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도 구체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린다.

◇ “최순실이 집값과 옷값 내”=특검팀은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값을 대신 내는 등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1990년 무렵 서울 강남동 삼성동 주택(이하 ‘사저’)으로 이사할 때 최 씨가 어머니인 임선아(2003년 사망) 씨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신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동산은 199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박 대통령 명의로 등기돼 있다. 사저 땅(484㎡)과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합계 317.35㎡)의 부동산 가액 합계는 작년 3월 25일 공적자 재산공개를 기준으로 25억 3000만원이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 무렵부터 의상제작 비용을 대신 냈으며 2013년부터 약 4년간은 의상제작비 외에도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약 3억8000만원을 대납

헌재, 탄핵 심판 마지막 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사실상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석 달 가까이 지속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판단을 끝내고 이번 주 내에 최종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날짜는 10일이 가장 유력하다. 퇴임일인 13일에 선고하는 방안이나 아예 일찍 8일이나 9일께 선고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이번주가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지막 주가 되는 셈이다. 헌재는 7일께 선고 날짜를 확정해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헌정 사상 두 번째 국정 공백 사태를 맞아 8일 동안 숨 가쁘게 달

“최순실이 박대통령 삼성동 집값 내고 매매계약도 했다

삼성, 정유라 명마 사취 … 213억원 규모 ‘뇌물 거래’

최순실 청탁 박, 안종범에 지시해 인사…정유라 입학 깨알보고”

朴대통령 측 “어거지로 엮은 것”

했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박 대통령은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명마도 사취다”=2015년 8월 최씨는 자신의 독일 법인인 코어스포츠(비텍스포츠의 전신)를 통해 삼성전자와 약 213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맺고 ‘뇌물 거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 승마단’의 해외 훈련 관련 용역대금을 처리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고, 삼성전자가 자선으로 말을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삼성전자가 산 말을 정 씨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냥 ‘준 것’이라고 특검은 판단했다. 최씨는 그해 10월 7억원대 마장마술용 말 ‘살시도’를 사들였는데, 말 어권상 소유주가 ‘삼성전자’로 표시된 것을 알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인사 청탁도 파악=특검은 최씨가 박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공모해 이상화 KEB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을 승진시킨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관련 지시를 내리면 정 부위원장을 통해 은행에 전달되는 방식이었다. 최씨는 먼저 2015년 11월 초 이씨를 하나은행 유럽총괄법인장에 앉히게 해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는 유럽 총괄 법인 설립계획 자체가 백지화돼 이뤄지지 않았다.

◇ “정유라 입학시켜라” 깨알 보고=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특혜 입학 추진 과정을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으로부터 깨알같이 보고받은 사실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최 전 총장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대 교수들은 특검의 이같은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선고 날짜 10일 유력 … 13일 가능성에 8일·9일 선고도 거론

탄핵시계 종착점 눈앞 … 선고날짜 내일 확정 공포할 듯

재판관 8명 매일 평의 통해 의견 교환 … 결론 도출 위한 작업

려왔다. 올해 1월 3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20차례 변론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을 청취했다. 증인 25명을 심판정에 소환, 박 대통령의 13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지난달 27일 최후진술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마무리 지었다.

탄핵시계가 종착점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탄핵심판이 어떻게 결론 날지 선뜻 예측하기란 어렵다. 최종변론 이후 8명의 헌법재판관은 매일 평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 도출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평의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철저한 ‘보안’에 부쳐지고 있다. 재판관들은 열띤 난상토론을 벌이는 것

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일각에서 제기된 국정원의 사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었다.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고 평의 내용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사무실과 평의실 등 곳곳에는 도·감청 방지 시설도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헌재 측에서는 “탄핵 심판과 같이 중요 사건은 재판관들이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한다”며 “재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어떠한 역사적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검찰, 특수본 재정비…‘우병우 수사’ 뿌리 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이 기존 특별수사본부에 재정비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존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사실상 ‘2기 특수본 출범’을 공식화한 것이다. 1

기 때처럼 이 지검장이 수사본부장을 맡고 특수부·첨단범죄수사부·형사부 등의 최정예 수사요원들이 대거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특검으로부터 6만~7만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서류를 인계받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박근혜특검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2기 특수본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규명하는 게 최대 과제로 꼽힌다. 최씨의 비리를 비호·묵인했다

는 의혹을 사는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삼성 외에 SK·롯데그룹 등의 뇌물 제공 의혹도 핵심 수사 포인트로 언급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병우(사법연수원 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비위 의혹과 관련해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특수본 합류가 접차지는 첨단범죄수사2부를 ‘우병우 수사팀’으로 거론하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



휴일 잇은 헌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양한 주거복지정보에 대한 궁금증?

내집 고민하듯 상담해드립니다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주거문제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 인터넷, 방문, 전화 상담까지 마이홈에서 원스톱으로 해결됩니다!

행복한 집을 위한 마이홈의 스마트한 생각들, 집으로 가는 길을 더 쉽고 편하게 안내합니다

맞춤형 상담서비스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공공임대, 주택금융 등 정부의 주요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통합 안내 서비스 시행

자세히 묻고 상담하고 더 확실하게 지원하는 방법, 어디 없을까?

지역상담 센터 직접 상담!

광주, 목포, 순천 3개 센터에서 전문 상담원이 1:1 면담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서비스 제공

전화로! 1600-1004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거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상담을 제공

인터넷으로! www.myhome.go.kr

연령, 소득, 주소 등을 입력하면 나에게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안내

인터넷은 어렵고, 쉽고 간편하게 상담 받을 수 없을까?

www.myhome.go.kr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방문상담 마이홈 센터

인터넷 www.myhome.go.kr

모바일

Android

iOS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마이홈으로 검색해서 설치하시거나 QR코드 스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 상담의 QR코드를 찍어주세요.

광주권

광주 서구 시청로91 LH 광주전남지역 본부 1층 062)360-3128

목포권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19번길 81 KT하당사옥 6층 061)287-3340

순천권

전남 순천시 중앙로 260 KT 북순천지사 3층 061)751-3394